

보도시점 2026. 9. 15.(화) 12:00 배포 2026. 9. 15.(화) 10:00

하반기 대외 경제 이슈 점검을 위한 재경관 화상회의 개최

- 美 AI 투자·日 투자 프레임 신설·이상 기후 등 하반기 주요 대외이슈 점검
- 주요국 정책·시장변화에 대한 현지 모니터링 및 적기 보고 당부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9.14일(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관 화상회의를 주재하였다. 재경관은 현재 15개국, 18개 공관*에 파견되어 주재국 정부 및 국제기구의 재정경제·금융 분야 협력, 주요 정책 동향 정보 수집 등 대외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 미국(워싱턴 DC, 뉴욕), 중국(북경/상하이), 홍콩, 일본, UAE, 인도네시아(ASEAN), 베트남, 태국, 영국, 프랑스(OECD/파리), 독일, 벨기에, 스위스, 그리스, 러시아

이번 회의는 미·이란 중동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하반기 우리 경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들을 미리 파악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 주요국 하반기 이슈 】

- (美) AI 투자와 위험 요인
- (日)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프레임 신설 등 전략 분야 투자 강화
- (英) 신정부 출범에 따른 향후 정책 방향 전망
 - * 앤디 버넘(Andy Burnham) 총리 7.20일 취임
- (EU) 이상기후(폭염,가뭄)가 경제(농업,에너지,물류 등)에 미치는 영향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은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현재의 이슈 대응하는 동시에, 향후 우리경제에 미칠 수 있는 변화를 한발 앞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 논의한 하반기 주요 이슈를 비롯해 각국의 정책 변화와 시장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지에서 새로운 이슈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공유해 본부가 필요한 대응을 적기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재정경제부는 앞으로도 재경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외 여건을 면밀히 살피고, 우리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책임자	과 장	최지영 (044-215-7610)
		담당자	김승환	김승환 (95ksh@korea.kr)

